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사람과 자연이 힘차게 약동하는 6월입니다. 여름 준비로 한창 바쁘신 때를 맞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만족해하는 교육으로 변해가고 있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모두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 여기고, 타인과 협력할 줄 아는 창의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 교육환경의 변화로 낮은 청년 취업률과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복도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중 하나가 '자살학생수'입니다.

교육부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교육 강화,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생명존중 교육자료 제작·보급,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 여명에 이르던 자살 학생 수가 작년 처음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학생도 많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살 사고는 작년 1~6월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15명에서 8명으로 감소한 데 반해 고등학생들은 작년보다 약 25.7% 증가한 44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저버렸습니다. 고등학생 자살 원인을 보면, 가정문제가 35%, 성적·진로 고민이 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정문제도 그 대부분이 학업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꾸지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상시 출결상황과 성적이 양호하고, 교우관계 또한 원만하여 자살 징후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자기 표현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누구보다 의지하는 곳 또한 학교이고 선생님들이 시기에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돌봐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때에 성적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생명존중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학교경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8.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이준식